

코로나에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늘었다

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발간 중3·고2년, 영어 기초학력 미달 2배 이상 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고등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며 학습 결손 우려가 현실화됐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과 택배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하면서 종이류와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도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공표된 자료로 작성됐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한국의 현황을 제시했다.

◆코로나에 벌어진 학습 격차...지역·성별 차이도 두드러져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적인 학습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 11월 시행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심으로 분석해보니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3.3%)보다 3.8%포인트(p) 늘어난 7.1%를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6%에서 8.6%로 5%p 확대됐다.

성별로 보면 중학교 모두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영어의 경우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7%에서 2020년 10.1%로 5.4%p나 늘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1.7%에서 4.0% 증가에 그쳤다. 고등학교 2학년 역시 남학생은 5.0%에서 12.8%로 7.8%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1%에서 4.1%로 2.0%p 증가에 머물렀다.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격차도 벌어졌다. 중학교 3학년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었다. 특히 수학에서 대도시(11.2%)와 읍면(18.5%) 지역 간 격차가 7.3%p로 전년(4.9%)보다 더 벌어졌다.

◆비대면에 배달·택배 늘자 재활용 폐기물 급증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음식물류를 제외

한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2020년에 폐기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폐기물은 2019년 하루 평균 3만5996t에서 2020년 3만7320t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종이류(24.8%), 플라스틱류(18.9%), 발포수지류(14.4%), 비닐류(9.0%) 순으로 급증했다. 반면 음식물류는 1.9% 감소했다.

통계청은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식물폐기물 감소는 간편식의 선호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2020년 하루 평균 15.8t으로 전체 의료폐기물의 2.9%를 차지했다. 지난해 1~8월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일평균 51.4t으로 전체 의료폐기물의 9.0%였다. 2020년 1~2021년 8월 누적 기준 코로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30t이며 확진자 수 1인당 의료폐기물 월간 발생량은 72.7kg이다. 이를 1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2.4kg이 폐기됐다.

◆취업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국제항공 화물 운송량 ↑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3~4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율은 2020년 3월 -4.9%, 4월 -9.2%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월 -15.7%로 최저치를 찍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 수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지난해 2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1년 12월 증가율은 3.3%를 보이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국제선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도 오름세를 보였다. 여객 운송량은 2019년 11월 696만4000명에서 2020년 4월 15만3000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해 11월 기준 36만9000명으로 늘었다.

화물 운송량 감소 폭은 여객보다 작았다. 2019년 11월 35만1000t에서 2020년 4월 22만1000t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2년 전의 83% 수준인 29만3000t까지 회복됐다.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1분위·2분위) 가구의 시장 소득은 감소했으나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총 6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직접 재정 지원, 금융 및 홍보 지원을 실시했으며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비어있는 혈액 보관 냉장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6일 전북 전주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에서 한 관계자가 혈액을 정리하고 있다.

'땀 남자 만나?' 연인 단골 술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조사중

연인이 다른 이성과 술자리가 잦아 데 불만을 품고,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연인의 단골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일 오후 10시께 같은 술집에서 술병을 던지고 수도꼭지를 부수는 등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연인

이 해당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화물질(시너) 1통을 구입,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해당 술집이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상인·주민들이 술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닷새 간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직접 재판 출석않고 '영상진술'

법원행정처·여가부,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게 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법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대책을 내놴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나오지 않고는 대신, 전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6항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에 관해 지원해 주는 곳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39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여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 시도 8개소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증인신문은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우선 성폭력

처벌법 40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165조의2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중계장치를 활용한 증인신문을 허용한다.

법원행정처는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상증인신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독립돼 법정에서 가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게 양 기관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처리 방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배포한다.

또 한 달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문체부 등을 분석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범행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나주경찰, 학생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신학기 교육청 등교방침으로 코로나19 이전처럼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기동취재본부



화순소방, 청명 한식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소방, 김명진 소방위 'KBS 119상'본상 수상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최근 KBS본관 TV공개홀에서 개최한 '제27회 KBS119상'시상식에서 김명진 소방위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인테 해양경찰교육원장, 식목일 맞아 기념 식수(植樹)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테)은 5일 오전 교육원 강당 앞 화단에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무등산국립공원, '청명·한식' 산불예방 활동 총력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기간에 주야간 비상근무 및 산불취약지구 순찰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지방방무청,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광주전남지방방무청(최규석)은 5일 광주지방공용노동청과 합동으로 방역지정업체인 ㈜진양을 방문해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서선욱기자